

# 제1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

2020. 5. 2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5월 27일

2. 회의방식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손 병 두 부위원장

이 성 호 위 원

최 훈 위 원

윤 석 헌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0년도 제8차 금융위 회의록, 제2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 제9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9차부터 제10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0년도 제8차 금융위 회의록, 제2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 제9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9차부터 제10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71호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2)』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 (위원) 현 상황에서 아시아권의 금융중심지 조성은 우리 한국의 경우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함. 차제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특히 외국인들을 한국

에 끌어들이 수 있는 유인책 같은 것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할거 같음.

- (보고자) 아시아권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환경 변화는 유념해  
서 추진할 것이고, 금융중심지라는 것은 교육, 의료환경, 세  
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인데, 최근에  
COVID-19 관련하여 한국의 K-방역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금융회사의 진·출입 현황을 보면 은  
행들은 한국에 진출하는 숫자가 줄어 들고 금융투자 분야인  
자산운용 쪽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가 연기금 규모가 상당히 크니까 그런 것을 촉매제로 활용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 (위원) ‘제2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행사(5.28)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막되는데 외국계 분들이 오셔서 행사  
를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장점은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겠음. 그리고 평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금융중심지 순위 기관에 대한 홍보도 중  
요할 수 있음.
- (위원) 지난번에 Z/Yen평가단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같  
이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포인트를 제시했음. 이  
것이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따른다. 그러니까 한  
국이 금융중심지 조성이라는 것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비용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 비용이라는 것은 외국인들한테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그것은 당연히 국가적으로 비용이 될 수 있으니

까 그런 식으로 관점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 비교해서 플러스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보고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국제금융센터지수 (GFCI)가 있는데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172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을 설명함

※ 외부장의 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173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부정 신고시 포상금 지급대상에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 신고도 포함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7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예보채상환기금 잔여재산을 공적자금상환기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출 규정을 예금자보호법에 신설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75호 『에스케이텔레콤(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76호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77호 『DGB대구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78호 『(주)빅밸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79호 『(주)공감랩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80호 『(주)KB손해보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81호 『신한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의결175호 에스케이텔레콤(주)과 의결176호 저축은행중

양회 금융서비스 관련임. 저축은행중앙회 건은 모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에스케이텔레콤(주)은 '5개 은행과 10개 금융투자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융위가 지정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신청을 해 오는 것인지?

- (보고자) '5개 은행과 10개 금융투자업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누구와 제휴되는지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으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위원) 의결181호 신한카드(주) 금융서비스 관련임. 송금 횟수 제한의 경우 서비스 만족도 등 조사결과 이러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정해 달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은 가상의 경우를 대비해서 신청한 것인지?
- (보고자) 신한카드(주)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GI) 인터뷰를 했고 그 결과 개선 필요사항으로 송금 횟수 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이 부가조건은 신한카드(주)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당시 업무방법 중 하나로 포함한 내용이며 신청 내용대로 지정하였음. 그 이후 다른 금융회사가 유사한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이와 같은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해서 지정을 받은 바 있어 횟수 제한을 없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
- (위원) 에스케이텔레콤(주)과 저축은행중앙회 부가조건을 보면 에스케이텔레콤(주)은 이니셜에 저장된 정보를 매 3개월마다 갱신한다고 되어 있음. 갱신한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다 없애고 또 요청하는 것인지?

- (보고자) 기본적으로 기존에 저장된 정보 중 신분증 정보의 변경가능성을 우려해서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작년에 지정했었던 아이콘루프 등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업체에게 부과한 조건과 동일한 것임.
- (위원) 기존에 받았던 곳에서는 별 문제제기가 없었는지? 실명확인 증표를 확인하는 것이 개인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음.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실명확인 증표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하고 금방 3개월이 지나갈 텐데 그것이 삭제되어 새로 또 처음처럼 갱신해야 돼서, 본인이 다시 등록해야 된다면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함.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3개월로 해서 받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과 얘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음. 이것이 편의성에 관한 부분이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있지만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했다면 소비자 편의성과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지정받은 업체들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기존 금융위 결정 존중과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을 부가하였는데 10월경 기존에 지정받은 업체의 지정기간 연장(안)이 올라올 예정인 바, 그때 동 내용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위원) 처음에 시도할 때는 조심스럽게 했지만 1년 동안의



경험이 있을 테니까 지정기간 연장 심사시에는 3개월마다 갱신하는 것과 연간 5,000명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같이 재검토 했으면 좋겠음. 그리고 (주)빅밸류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은행을 접촉 못해서 기간을 연장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감원에서 은행을 지정할 수도 없고 은행한테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겠지만 양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가급적 혁신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2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보험회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3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특수한 상황에서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4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 인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를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로 인정하는 내용

- (위원) 안건 제183호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임. 그런데 이번 안건은 그중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만 신용공여 한 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음. 그러면 증권이나 저축은행, 보험 같은 곳은 문제가 없는 것 인지?
- (보고자) 국내에 금융지주회사가 10개가 있음. 그중에 8개는 은행지주회사이고, 2개는 비은행지주회사로 메리츠지주와 한투지주가 있음. 금번 규정개정은 은행지주회사와 관련된 것임. 증권지주회사나 보험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에 부과되는 한도규제가 없음. 2009년 7월에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도규제를 폐지했음.
- (위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때문인데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미리 선제적

으로 예비해서 하는 것인지?

- (보고자) 지주계열 내에 유동성이나 여유가 있는 자회사가 유동성이 부족한 다른 자회사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미리 완충장치를 두는 차원임.
- (위원) 자기자본은 지주의 자기자본인지 아니면 은행의 자기자본인지?
- (보고자) 자회사인데 그중에서 은행을 생각하시면 됨.
- (위원)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난 후 은행이 일정한 금액을 신용공여 할 경우, 전체적으로 자본의 요구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음. 그것을 감안해서 이 제도가 들어가면 신용공여가 쉬워진다고 보는 것인지?
- (보고자) 이것은 신용공여 한도인데 은행의 자기자본이 100이라고 했을 때 다른 자회사 등에 할 수 있는 것이 10원이었다면 최대 20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지를 넓게 가져가는 규정임.
- (위원) 코로나19에 대한 금융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캐피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개 차입에 의존해서 하는데 시장에 가서 차입에 의존해서 시장을 교란하지 말고 지주 내에서 해결하라는 상황에서 예비용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5호 『케이알투자증권(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가 최대주주 ◆◆◆◆으로부터 케이알투자증권(주)의 주식 ■■.■■%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재무현황을 보면 작년 말 자산부채총계가 198억 원인데 3개월 만에 3,624억 원으로 증가한 배경이 있는지?
- (보고자) 이 회사가 채권매매중개를 할 때 자기계산으로 매입한 다음에 다시 또 매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결제가 T+1일에 이행되는 관계로 일시적으로 미지급금과 미수금이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6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해 회원국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 (위원) 패스포트 펀드 감독을 위해 회원국 감독당국끼리 정보공유가 가능한 체제인지?
- (보고자) 회원국 양해각서에 설정국, 판매국에서 공동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수단도 있음. 더 필요한 부분은 회원국들과 합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준비해 나갈 예정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3) 보고안건 심의

- ☐ 보고안건 제16호 『에셋원자산운용(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충족에 따른 처리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에셋원 자산운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종결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7호 『(주)우리금융지주 설립인가 부대조건 이행 결과 보고』, 제18호 『2019.10월~2020.3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제19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서면 보고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10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54분 폐회)